2018년 8월 23일

토론토 대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1코린 12,26)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주 대배심의 보고서가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보고서와 전 세계 교회내에서 행해진 성범죄에 대한 답변으로 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이 서한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주교와 성직자를 비롯해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연구해야하고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이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직의 사명을 악용한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사제직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악용하여 무고한 어린이들의 삶을 통제하고 학대함으로써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도록 만든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교들중에서도 권력, 욕망과 이기적인 역겨움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교우들을 위해 신뢰와 책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의 주교들은 신자들이 그들에게 바라는 행동과 투명함, 책임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철저히 살아가는 영적인 아버지, 목자, 성직자로서 한 점의 결함없이 성실하게 신자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 많은 이들과, 특히 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격분하는 가운데에서도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캐나다 천주 교회는1980년 말부터 학대 혐의를 다루는 특정 대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토론토 대교구는 거의 30년동안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지켜왔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천명의 자원 봉사자들에 대하여 범죄 경력을 조회 하고, 성직 청원자들은 광범위하고 엄격한 심사와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 사례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수정하는 절차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는 성직자들과 교회에서 일하는 평신도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www.archtoronto.org/about-us/safe-environment에 들어 가셔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피해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소자들과 신학생에게 세심한 주의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품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성스러운 사제로써 우리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키기 위한 양성 프로그램과 식별 과정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진심어린 사랑을 보여주는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본당에서 충실히 사목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주시고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토론토 대교구는 모든 성당에서 두 주간 주일 미사를 드릴 때 학대를 받은 많은 피해자들 특히 교회와 다른 기관들로부터 상심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새로운 삶과 갱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악이 밝혀지는 것 그것만이 스캔들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사악함이 곪는 것이 진짜 스캔들입니다. 일단 알려지게 되면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뿌리째 뽑혀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 새로운 삶,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신성하고 기쁨에 찬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안에서,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토론토대교구